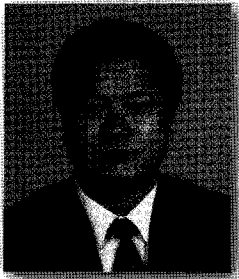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눈향나무

- ▶ 과명 : 측백나무과
- ▶ 학명 :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
- ▶ 영명 : Sargentii Juniper
- ▶ 한명 : 眞柏, 賣柏, 柏
- ▶ 일명 : みやまびゃくしん



최명섭
(국립산림과학원 대외협력과)

한라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전국의 표고 700~2,300m에 누워서 자라는 고산성 상록침엽관목으로 높이가 60cm, 폭 5m 내외로 넓게 퍼져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일본, 만주, 시베리아에 분포한다.

한 나무에 끝이 뾰족한 침엽과 비늘잎으로 포개져 있는 비늘잎이 모두 있으나 대체로 비늘잎이 많다. 특히 나무의 생육상황이 불량하거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간혹 침엽이 보이기도 한다.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종이지만 저지대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며 내한성도 강하고 건조지와 대기오염에도 잘 견디며 바닷가에서의 생장도 양호한 편이며 재배적지로는 배수가 잘 되는 다소 건조한 사질양토를 좋아하며, 습지가 아니면서 향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이면 된다. 잎은 길이 3~5mm, 넓이 0.6~0.8mm로 어릴 때는 인엽보다 침엽이 많다가 성숙해지면 대부분 인엽으로 바뀐다. 잎의 색깔은 백청녹색으로 가지에 십자대생(十字對生)하여 붙으며 인엽의 끝은 둔두로 중앙에 백색선이 있다. 꽃은 암수딴그루로 4~5월에 가지 끝에서 개화하며 열매는 길이 5mm, 넓이 8mm의 구과로서 장질이며 이듬해 10월에 익는다. 종자



는 1~3개씩 들어 있으며 난형이고 길이 5mm로서 약간 편평하며 짙은 갈색이 돌고 윤채가 있다.

지상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라 부드러운 인상을 주며 색깔이 곱고 질감이 좋아 통행이 많은 출입구나 언덕에 식재하면 한층 더 고귀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4대강 독의 사면이나 도로변 절개지에 식재하면 토양 유실도 막을 수 있고 피복도 쉽게 이루어져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유사한 종으로 섬향나무와 일본눈향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눈향나무와 비교가 된다. 섬향나무나 일본눈향나무는 대부분 침엽으로 되어 있어 거친 느낌을 주나 눈향나무는 비늘잎으로 되어 있어 한층 부드러움을 준다.



번식은 종자파종 및 꺾꽂이로 한다.

종자는 7~8월에 익은 2년생 구과를 채취하여 겉껍질을 깨끗이 세척한 후 모래와 섞어 온상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눈향나무 천연집단의 경우 서식환경의 악화로 개화 결실이 불량하여 종자에 의한 번식이 어려우므로 유성증식보다는 무성증식법 개발을 통한 유전자원 보존이 더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무성번식의 한 방법으로서 모수형질을 그대로 유지하며 번식시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며, 적은 비용으로 대량 증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눈향나무의 삽목은 삽수는 2년지가 포함되도록 8cm 내외로 조제하여 5월에 하거나 9월에 여러 가지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 삽목 하였다니 효과적이었던 연구 결과가 있다.

전해에 자란 새가지를 꽃꽂이나 플라워 코사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